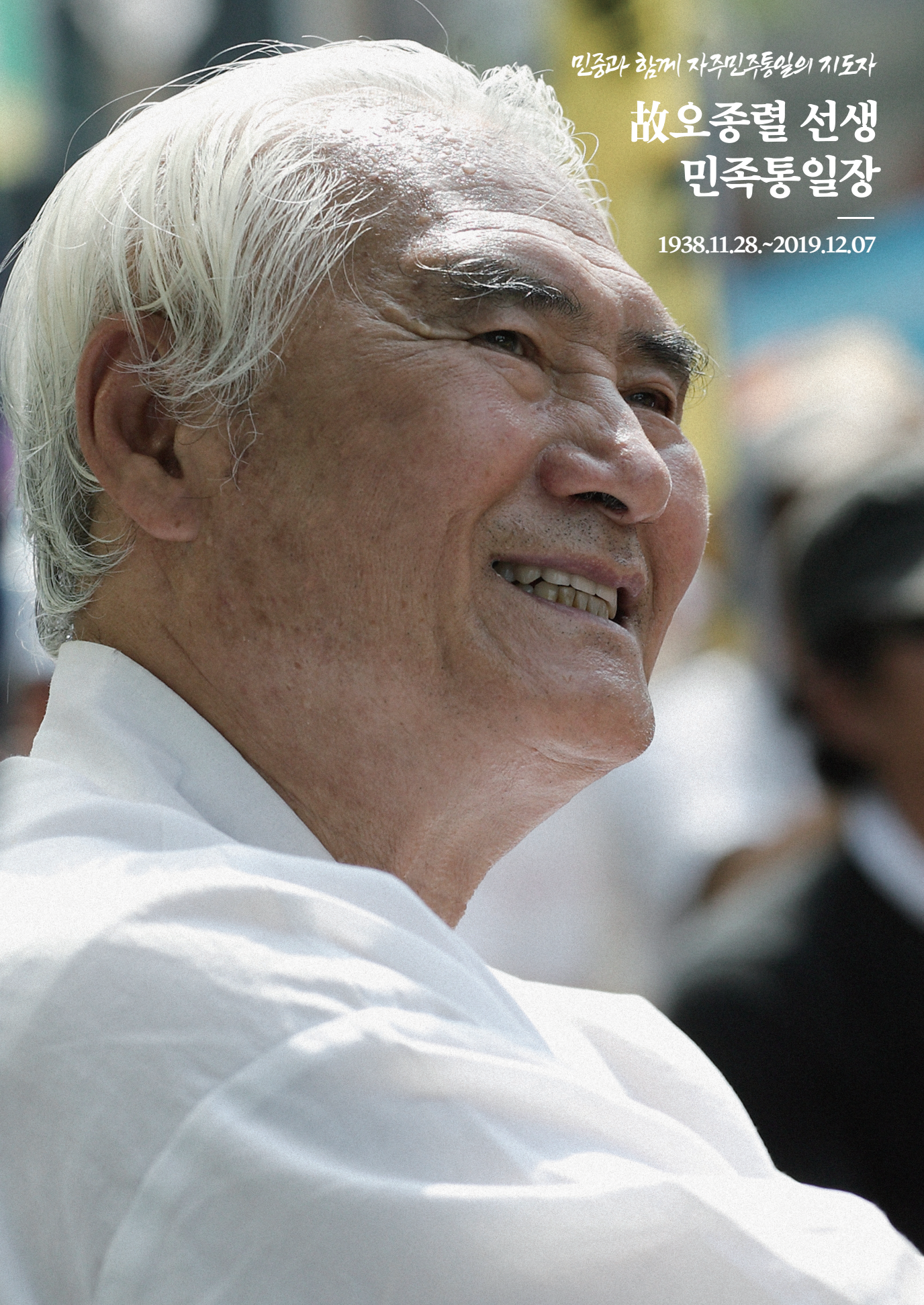




민중과 함께 자주민주통일의 지도자

故오종렬 선생
민족통일장

1938.11.28.~2019.12.07

사상은 뿌리 깊게
표현은 낮고 얹게.
연대는 넓고 넓게
실천은 무궁토록!
홍철

사상은 뿌리 깊게
표현은 낮고 얹게
연대는 넓고 넓게
실천은 무궁토록!



해봤자가 아니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족의 자주, 민중 해방세상, 거룩한 평등의 복지세상,
이건 기어이 우리가 하고야 만다는 것을 대대손손 이어가야 합니다.
머지 않아 그 영마루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지 굳게 갖고, (정광훈)의장님을 사랑하고 기리는 마음,
의장님과 함께 누워계시는 민족민주열사들 숨 거둘 때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시선 끝,
한 지점에 만나는 그 초점.
자주·민주·통일의 복된 세상 여러분들 당대에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질기고 천한 목숨이지만 내 그것 하나는 꼭 보고 가고 싶습니다.
설사 꽃이 만발한 것은 못 볼 지언정
꽃 봉오리 맺는 것까지는 보고 갈 것입니다.

2016년 5월 7일 <고 정광훈 의장 5주기 추모제> 추모사 중

투쟁의 아버지 오종렬 동지를 떠나보내며

박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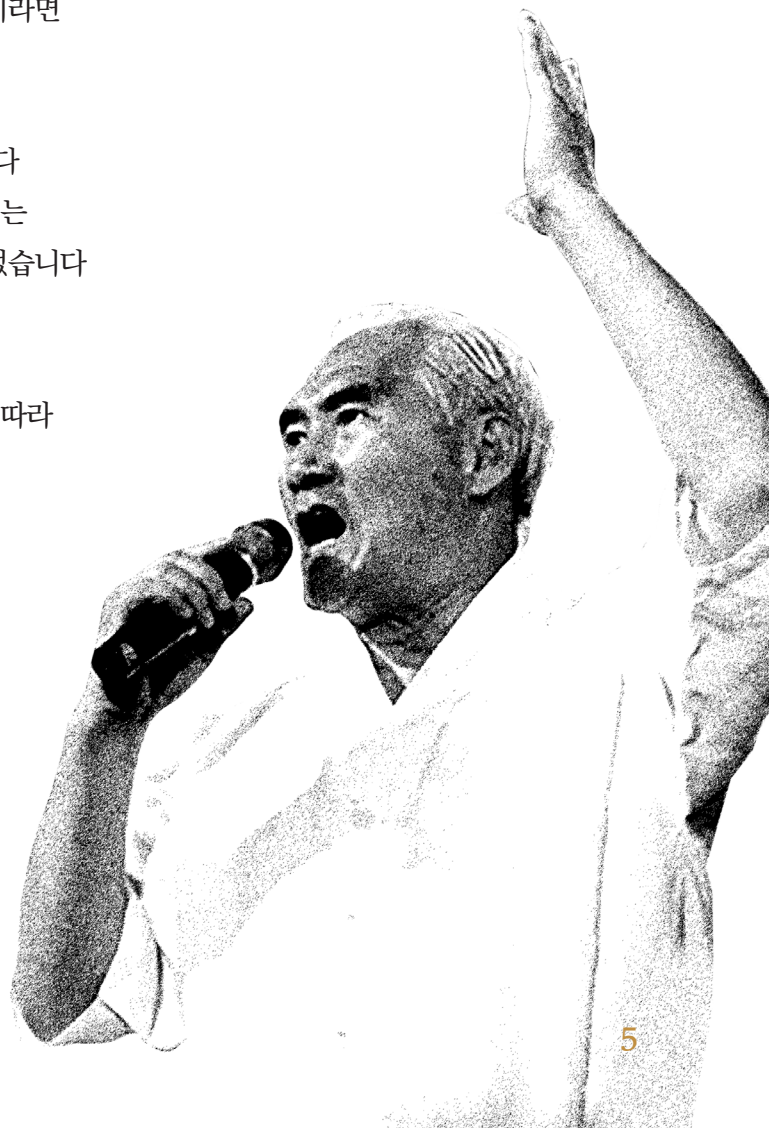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로
투쟁의 현장을 지켜 온 아버지
만인을 위해 산산이 부서져 간 우리의 아버지
수 십 년 먼벽승보다 더 경외롭게
투쟁에서 해탈을 써 내려간 민족의 아버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 땅
광주를 떠나 멀리멀리 날아오르는 날이 오늘입니다
가시는 걸음마저 투쟁일 것만 같아
우리도 따라서 투쟁을 하고 있어야만 될 것 같아
안절부절 하며 당신이 떠나는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섬마을 선생님이로 삶의 역사를 가르치고
사랑하는 섬의 여인을 만나
행복하게만 살아야 했던 당신을
조국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짐을 걸머지고 민중의 바다로 나서야 했습니다
부서진 작은 조각배일지언정 타고 진군해야 했습니다
부인도 자식도 당신을 따라
모두 투쟁의 전선에서 최루탄을 벗 삼아
시련의 해방 춤을 추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과 투쟁이었습니다
백만 청년학생들의 애국단심 앞에서
천만 노동자들의 항쟁 앞에서
천만 농민들의 고통 앞에서

백두산 호랑이 같은 포효로 나아 갈 길을 외칠 때면
모두가 강철의 심장으로 무장을 하고 일떠서서
조국통일만세 민중세상 만세 민족해방 만세만세
모두가 선생님을 따라 외치며 전선으로 내달려 나갔습니다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러운 자 되어
조국을 등질 수 없어 나로부터 가노라
승리할 그날까지
오직 투쟁의 한길로를 염원했던 조국의 어버이
우리들의 동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당신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스팔트에서 굴뚝에서
법원에서 징역에서
그 어디든 가리지 않고 민중이 있는 곳이라면
당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먹는 밥에도 마시는 술에도
전사의 영혼처럼 당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마저 전쟁터일 수밖에 없는
당신의 걸음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뜻 따라
한평생 후회 없이 싸우다 갈 것입니다
승리할 그날까지 싸우라는 당신의 외침 따라
마지막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부디 우릴 지켜 주소서
영영
우릴 지켜 주소서
영영
제발 우릴
지켜주소서
영영
영영



의장님이 걸어온 길

- 1938** 11월 28일, 전남 광산군(현 광주) 출생
광주서석초, 광주사범병설중학교,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사범대학 과학교육과를 거쳐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1970.2)를 졸업.
광주사범대학 졸업 이후, 교원에 임용돼 고흥에서 초등, 중등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중등교사로 부임하여 교단에 섰다.
금산초등학교익금분교장을 시작으로 고흥포두중학교, 신안암태중학교, 진도고성중학교, 전남고등학교(11년), 광주동명여자중학교 (2년), 전남대학교 사대부속고등학교 (5년), 전남여고 해직(4개월), 11년만에 교단에 복귀 광주 용봉중학교 교사 재직하고 정년을 맞는다.
- 1964** 육군제2훈련소 경비대대에서 3년 만기 복무 후 하사로 제대
- 1966** 김평임 님과 결혼. 슬하에 4남.
- 1987**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전교조의 전신)의 출범에 참여
- 1988** 전국교사협의회 대의원 대회 의장으로 활동
- 1989** 전교조 초대 광주지부장, 전교조 관련자로 구속, 집행유예 선고
7월 5일, 옥중에서 교사 파면
- 1991** 제 1대 광주시의회 의원 당선 (무소속)
11월,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공동 의장 선출
- 1993** 5.18 진상규명 없는 김영삼 대통령 광주망월동 묘역 방문 반대 입장 발표
- 1994**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생활 (2년 8개월)
- 1997** 9월, 홍성교도소에서 출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
- 1999**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 2001** 통일연대 상임대표
9월, 군자산 정치 방침 발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상임공동대표

- 2002** 여중생 범대위 대표
- 2003** 전국민중연대 상임공동대표
한칠레 FTA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15일간 단식
- 2004**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단 단장
- 2005** 우리쌀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
전용철 홍덕표 농민열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APEC 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
WTO 협상 저지 한국민중투쟁단 공동단장
- 2006**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6월, 한미 FTA 저지 1차 워싱턴 방미투쟁단 단장
10월, 한미FTA 4차 협상, 제주 투쟁
12월, 한미 FTA 저지 3차 몬태나 방미원정투쟁단 단장
- 2007** 3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5일 단식 투쟁
7월, 한미FTA 관련 서울구치소 구속
9월, 한국진보연대 출범, 상임공동대표
- 2008** 2월 23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해산
5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
8월, 광우병 투쟁 관련 수배와 구속 : 수배 중 수원, 당진, 인천, 충남, 충북, 전북, 서울
을 돌며 한국진보연대 후원회원 1천명 조직. 11월 종로서로 연행
- 2009** 2월, 출소
3월,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 2013** 5월, '방미평화사절단'으로 미국 방문하려 하였으나 미국정부로부터 입국불허
9월 4일, 통일의길 이사장
- 2014** 2월, 간경화, 급성 신부전증 진단. 건강 악화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현)
- 2015** 5.18 민족통일학교 설립 및 초대이사장 (현)
- 2019** 12월 7일 밤 10시 57분, 영면.

의장님의 삶

어린시절

하늘의 별 같은 민족지도자들이 몽땅 변절해 간 일제 광풍의 암흑시대. 중일전쟁 이듬해인 1938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311번지의 가세마저 폭삭 기울어진 딸 부잣집에 사내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온갖 축복과 환호 속에서 아버지 오정근과 어머니 박성노 사이 2남 4녀 중 여섯째 막내아들 오종렬이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축복과 환호도 잠시, 오종렬의 집안도 일제 광풍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오종렬의 큰형은 징병으로 빼앗기고, 큰딸은 정신대 사냥 피하려고 열일곱 나이에 시집보내고, 어렵게 지은 농사는 공출로 빼앗겼다. 충알인지 대포알인지 만든다고 낫그릇 젓가락 수저도 다 빼앗기고, 학교에 간 오종렬의 누나들은 근로봉사로 날이 저물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다. 갓 국민학교



▲ 중일전쟁 이듬해인 1938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311번지에서 태어났다.

에 입학한 오종렬은 문중 할아버지의 불호령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할 일 없는 8살 백수가 되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그때 오종렬 나이 8세. 정확히는 태어나서 6년하고도 8개월쯤 될 무렵,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세상 사람들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어쩌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8살 어린 나이의 오종렬이 보기에 신기하기만 했다.

오종렬의 얘기를 들어 보자.

“해방! 자유! 독립! 만세! 외치는 말, 우렁찬 목소리는 귀청을 찢렸어요. 태양도 어제의 그것이 아니었고 하늘의 별이 다 내려와 우리와 함께 춤추는 것 같았어요. 숲도 강물도 만세 행렬을 따라오고, 팽과리, 태평소, 징소리, 북소리에 맞춰 동네 강아지들 줄줄이 날뛰는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날의 만세 행렬 맨 끄트머리에 벗겨진 고무신짝 든 오종렬이 따라붙었다고 한다.

이젠 대동아전쟁에 끌려간 형님도 돌아오고, 아들 빼앗기고 목 쉬어버린 엄마 목청 살아나고, 농사지어 거둔 곡식 공출은 물론 나이 들어가는 누나들 빼앗기지 않게 되고, 일본 순사 헌병 그 무서운 귀신들 다시 나타날 일 없고, 독립군 혁명가들이 붙잡혀서 고문치사 당했다는 어른들의 몰래 하는 말 이젠 듣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말조심 몸단속에 애들 잘 간수하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잠결에 듣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독립군 혁명가들 무용담을 터놓고 뽐내며 들을 수 있어 좋고, 이제 나도 다른 또래처럼 학교에 갈 수 있는 데다, 그 무엇보다 ‘이젠 우리도 배 안 고프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은 천지가 개벽한 날. 노예가 사람이 되는 날, 민족의 염원을 노래한 심훈 선생의 “그날이 오면”이 실제로 온 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축 행렬 흩어진 뒤 끝에서 슬슬 스며 나오는 괴상한 얘기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놈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상하고 요사스러운, 그러면서도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무슨 예언 같은 것이 돌았다. 아닌 게 아니라 815는 온전한 해방절도 광복절 아닌 반절의 해방절, 광복절이자 새로운 질곡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변혁의 피를 잇다

아버지 오정근은 어려운 가세에서도 서울경동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 전기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할 정도의 인텔리 활동가였다. 1933년 적색 농조 운동을 이끌면서 구금되기도 하고 그 뒤 여운형의 건국동맹에서 활동하다 1945년 해방이 되자 해방정국에서 여운형, 박헌영 등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와 나주인민위원회 농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45년 10월 맥아더와 존 하지의 점령정책에 따라 미 군정에 의해 나주 인민위원회는 철저히 파괴되고 부친을 포함한 핵심 간부들은 46년 2월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 뒤 광산군 인민위원장인 그의 외삼촌 역시 인민위원회 활동으로 미 군정에 의해 광산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 1899년생이신 부친 오정근 일본 유학 즈음

오종렬의 누나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당시 송정여중의 동맹휴업을 조직하고 선도한 이후 수배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한국전쟁 중 보도연맹으로 광주교도소에 끌려가 학살 직전 구사일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 앞 왼쪽부터 오종렬의 부친, 모친, 본인. 모친 뒤의 여성이 오종렬의 누이이다.

해방의 기쁨으로 삼천리강산이 춤추고 노래할 때, 오종렬의 가정을 비롯한 일족은 분단의 칼바람을 맞아 풍비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광주서석초등학교 광주사범병설중학교와 광주고등학교 시절



▲ 오종렬이 매우 존경했던 모친

부친 오정근과 외삼촌이 형무소에 갇히고 모친 박성노도 가혹한 고문으로 후유증을 겪었고, 부친과 외삼촌의 옥바라지에 가계를 혼자 꾸려가는 모친 슬하에서 오종렬은 불우한 유소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한 번은 모친이 형무소에 갇혀있는 부친과 외삼촌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오종렬은 “나도 형무소에 갇혀서 그 맛있는 반찬 먹고 싶다”고 때를 쓰다가 모친의 회초리에 심하게 맞았다고 회고하기도 한다.

불우한 가정에서 가난하고 힘겹게 자랐지만 총명하고 담대했던 천성으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남기기도 한다.

오종렬은 송정리 시골 초등학교(송정 동초등학교)에서 대도시의 광주서석초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된다. 화장실에 갔는데 똑같이 생긴 교실이 너무 많아서 혼란 오종렬은 자기 교실을 찾

지 못하고 헤매다가, 같은 반의 이름도 모르는 급우를 보자 대뜸 꾸짖는다! “야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너희 교실로 가!” 하니, 그 급우는 슬금슬금 피하듯 자기 교실을 찾아갔고 오종렬은 그 급우의 뒤를 따라 교실을 찾을 수 있었다 한다. 광주고 시절에는 교련선생이 학생들을 심하게 탄압하자 오종렬은 전체 학생들을 모아 구령대에서 일장연설을 하여 그 교련선생을 쫓아버리게 되는데, 쫓겨 나가는 그 교련 선생이 오종렬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나갔다고 할 정도로 학창시절부터 기지와 의기가 엿보이는 오종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중학생 시절 오종렬의 모습

광주사범대학에 입학하다.



▲ 오종렬의 대학시절. 오른쪽 첫번째.

학창 시절 오종렬의 꿈은 군인이었다. 전쟁 이후 정치 권력은 군인에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군인은 선망받는 직종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매력에 끌려 군인이 되려고 사관학교 시험까지 봤으나 결국 당연하게도 신원조회에 걸려 좌절된다.

그 후 오종렬은 당시 2년제였던 사범대가 마음에 끌렸고 교사를 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이 역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오종렬은 “독일통일에서의 주

역도 한 교실에서 나왔단 말이지. 그런 뜻을 품고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한다.

오종렬은 지금 교육대학교 전신인 2년제 초급대학인 광주사범대학에 입학한다. 과학교육과에 들어가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1959년과 1960년이였다. 그러니까 2학년 때 4.19 혁명을 맞게 된 것이다. 오종렬이 사범대 학생회장이었던 시절이다.

그러니 경찰이 가만두지 않았다. 오종렬의 말을 들어보면 “나에게 정보과 형사가 직접 와서 밀착한거야.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러다가 옆구리에 칼을 대고 나를 은연 중에 협박한게 우리집 내력이야.” 결국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가 없었고 친구들 몇몇 밖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 군복무 당시 오종렬 하사계급장을 확인 할 수 있다. 자기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군 생활을 황금보다 귀히 쓸 수 있었는데도 애를 못 식여 건강만 해치고 허송한 3년 세월이 너무 아쉽다고 회고한다.

1등 사수, 육군 오 하사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군대에 징집이 되었다. 논산에 있는 육군 제2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3년을 보내고야 말았다

군대에서 오종렬은 쾌속 진급을 했다. 같이 들어간 동기들이 일등병일 때 오종렬은 상병을 달고, 상병일 때 병장을 달았다. 당시엔 장교가 부족해서 일반 사병 중에서도 하사관을 뽑았는데 오종렬 역시 시험을 쳐서 하사관까지 됐다. 사격 훈련만 하면 백발백중인 1등 사수에다 하사관까지 한 모범병사였던 것이다. 오종렬은 “나에게 군대도 안 갔다 온 정치 모리배들이 ‘빨갱이 종자’라고 할 때면 코웃음이 난다”며 호탕하게 웃곤 했다.

청년시절 신체단련

오종렬은 ‘힘은 근육에서! 근육은 규칙적인 운동에서!’라는 격언을 남긴 유젠샤도우(아령의 창시자)의 운동철학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운동을 통한 심신단련으로 고질병들을 치유하고 체력을 단련하였다. 운동의 중요성을 실감한 오종렬의 운동철학은 제자들과 자녀들의 교육철학으로 이어진다.

훗날 초등6학년 아들이 여쭙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아빠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오종렬은 대답한다. “단련이다”



▲ 1966년 8월, 교원연수 출장 중 여수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오종렬의 사진, 사진을 설명하며 누군가들이던 카메라 앞에서 포즈잡시고 취한 모양인데 어색하지는 않느냐며 웃는다. 고등학교 시절, 폐결핵으로 귀신 형국이 다된 데다가 위계양까지 겹친 몸을 겨우 살려내서 어금니 악물고 담금질한 결과라고 한다.

섬마을 선생님, 결혼

오종렬은 제대 이후 부산에서 부두하역노동자 등 1년 동안을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동을 했다. 그리고 고향 광주로 돌아와 첫 부임한 곳이 바로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초등학교였다. 혼기가 짙은 선생님을 시골마을에서 가만두지 않았다. 그 중 학교에서 간사로 일하며 오종렬을 잘 보았던 김평임의 큰 오빠가 중매를 서서 지금의 김평임을 만나게 된 것이다. 오종렬은 김평임을 “매우 머리가 우수하고 총명하다 그리고 엄청나게 부지런하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종렬의 어머니를 모시고와 김평임을 소개하고 양가의 만남 이후 결혼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규와 창규 쌍둥이를 낳았다.



◀ 오종렬의 결혼식 가족사진 (오종렬 좌측으로 모친과 부친이 그리고 신부 김평임의 우측으로 장모 김모방덕과 장인 김수열)



◀ 젊은 시절의 김평임



▲ 익금 분교장 시절의 오종렬. 왼쪽 첫번째.



▲ 오른쪽 첫번째가 중매를 선 김평임의 큰오빠. 오종렬의 뒤편에 서있는 사람은 죽마고우 정석종 전남대 총장이다.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건 교직생활!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이 공급된다.

이 시기 오종렬은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 아이들이 자라 자주성, 창조성, 공동체성을 발현하며 사회는 민주화되고 나라는 통일될 것이라는 아주 소박한 교육자적 양심과 야심을 가졌다고 했다.

여러 가지 실험도 했다고 했다. 조회와 종례를 전달사항 메모만 해주고 주도는 학생들이 하게 하곤 했다. 돌아가면서 당번 정해서는 학생이 답임을 맡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저런 시도를 하다 보니 정작 오종렬이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종렬은 바닥에서 배워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바닥에서 올라와야 한다.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듯이 민중 속에서 지혜와 용기가 올라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오종렬의 전선운동 당시 활동의 근간이 된다.



▲ 교사 시절, 학생들과 함께 한 오종렬. 오종렬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선생님이었다.



5·18, 부끄러운 선생의 모습으로 광주를 누비다

80년 광주에서는 학생·시민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 및 지방에서도 대규모 시위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다. 남한 땅 전체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민중의 분노를 담은 지뢰밭과 같은 형국이었다.

80년 당시 오종렬은 전남고등학교 과학교사 겸 학생지도부장을 맡고 있었다. 전남고 학생들도 역시 심상치 않았다. 교문 밖으로 몰려나가려는 학생들을 겨우 막아 나선 오종렬은 그들 중 학생대표 강대우를 붙들고,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길 없는 동물적 직감으로 “얘들아, 군이 반드시 움직인다. 그들은 분명 위험한 장난을 할 것이다. 이를 알고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렇게 아이들이 제발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학생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아이의 대답은, “선생님, 괜찮을 것입니다. 군이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오종렬은 땅으로 스르르 무너져 주저앉아 버렸다. 아이들이 무참히 쓰러지는 환상을 본 것이다. 학생들이 고통 속에 절규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는 이미 오종렬 앞에 없었다.

오종렬의 동료 교사였던 전남고등학교 학생지도부 소속 영어교사 김충희의 아내 최미애는 시내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걱정 끝에 남편 마중하러 대문 밖을 나섰다. 마침 그때, 젊은이를 사살한 계엄군이 시신을 끌고 가더라. 동네 아줌마, 할머니들이 “이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송장이라도 내놔라!”고 외쳐댔는데 돌아서며 갈긴 M16총탄에 만삭의 최미애가 쓰러지고 말았다. 달려나간 친정어머니가 딸을 안아 일으키자 뱃속의 아이가 살자고 펄떡 펄떡 뛰는 걸 보고 기절하였고 뒤늦게 도착한



▲ 지금도 망월동 구묘역 분향대 바로 옆에 서있는 고 최미애님의 묘비. 518희생자인 고 최미애님은 오종렬의 동료 교사 아내였다.

남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꺾꺾 숨 막히며 뜨거운 눈물만 쏟았다고 한다.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오종렬은 학생들을 찾기 위해 다시 또 정신없이 헤맸다. 수많은 시신터미들, 그 속에 한 작은 주검 앞에서 발걸음을 땔 수조차 없다. M16 소총에 맞아 산산이 부서져 버린 한 어린 소년의 머리통... 마치 날카로운 돌 모서리에 던져져 깨져버린 수박과도 같았다. 그토록 처참해 보였고 울긋 토할 것만 같았다. 그 후로 오랫동안 수박을 먹지 못하였다고 한다.

금남로에 담겨진 오종렬의 고백

광주 그 현장에서 보낸 80년 5월을 생각하면, 오종렬은 씻을 수 없는 두 가지 부끄러움을 동시에 떠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미 항공모함 코럴시호가 부산 앞바다에 정박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오종렬은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곧 온다, 우리 용기를 내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며 시민들에게 호소하였던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종속 관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던 오종렬이, 미국의 본질과 그 단면을 나름대로 꿰뚫어보고 정리해온 나이 마흔이 넘어선 소위 지식인이었던 오종렬이, 그렇게 까지도 상황을 몰랐었던가하며 자괴감에 몸서리쳤다고 한다.

그리고 뜨거웠던 항쟁의 시기, 연일 학생들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며 아침마다 오종렬은 아주 당당하게 나갔다. 마치 시내 현장에 있어야만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보호될 것만 같은 환상과 함께, 그러나 막상 그 끔찍한 생사의 현장에 도달해 계엄군들이 총을 쏘며 쫓아오면 정신 없이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달아나는 뒤통수에서 솟아오르는 그 치욕. 그러나 다음날이면 또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나섰다가 비겁하게 또 도망쳤다.

바로 그 두 가지의 부끄러움, 어리석음과 비겁함! 그것은 역사와 광주에 대한 오종렬의 큰 빛으로 남게 된다.

오종렬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혼자 술 마시고 신음하다가 겨우 잠드는 버릇을 10년 가까이 버리지 못했다. 정신 나간 사람, 녀 나간 사람처럼 ‘나 죽으면 저 흘러가는 구름 되리, 나 죽으면 저 흘러가는 물 되어 우리 형제들 씻어 주리’와 같이 죽음에 대해 혼자 뇌까리며 병적인 생활 역시 1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지워버리고만 싶었던 오종렬의 모습에 대한 자책감도 함께 말이다.

오종렬의 병은 1987년 거리와 명동성당에서 민중들과 어깨 곁고 6월 항쟁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온 힘을 다하는 속에서 치유되어갔다. 이 땅의 자주와 민주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 치열한 투쟁의 현장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말이다.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1987년 6월 10일, 광주 민중항쟁의 피명을 안고 끝도 없이 몸부림하던 대지는 그 날, 마침내 민중의 한을 화산처럼 내뿜었다. 광주학살의 피 묻은 손으로 정권을 거머쥔 군부 독재자들은, 온 세상을 군화발로 짓이키며 영구집권을 꿈꾸었지만 우리 민중들은 그들을 오래 용납하지 않았다. 7년, 꼭 7년 만에 우리 민중은 항쟁의 불길을 다시 치켜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항쟁 3주일이 채 못 되는 6월 하순쯤, 예기치 않았던 장면을 오종렬은 목격한다. 지금도 사람들 입에 전설처럼 오르내리는 ‘넥타이 부대’와 ‘노동자’ 진출이 바로 그것이다. 최루탄

이 직격으로 날아들고 몽둥이가 머리에 내리꽂히는, 광폭한 탄압을 뚫고 사무직 노동자들이 항쟁의 현장에 나타난 것이고, 7월, 8월, 9월 억센 주먹으로 어용노조를 뒤집고 자주적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노동자를 본 것이다.

노동조합. 마침내, 남녘 민중들이 모두 하나처럼 뭉쳤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태동하게 된다.

1989년 전교조결성과 첫 번째 구속

민주노조 물결을 목격한 오종렬은 ‘참교육실현은 우리의 생명이다’, ‘교사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교사도 노동자라는 선언과 함께 1987년 전국교사협회의 출범에 가담한다.

이에 호응한 교사들도 1987년부터 교육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단초이자 그 성과라는 결의에 따라 자주적 민주교원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종렬은 1988년에 전국교사협회 대의원대회 의장을 역임하고 그 다음해인 1989년 전교조 초대 광주지부장을 역임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이를 모두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1,500명의 민주조합원을 해직·파면·투옥 시키는 등 이른바 교육대학살을 자행한다. 이때 전교조 결성 건으로 오종렬은 구속되어 7월 5일 옥중에서 해직 처분을 받는다.

오종렬은 전교조는 자신의 모태 조직이요, 운동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스승’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에 묶여, 혹은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권력의 종노릇에 내몰리는 세월, 그 허위와 치욕으로 점철된 거짓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교육노동자로 다시 태어나 자주적 다리로 우뚝 서자는 것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너른 품으로 함께 일어서자는 것이 전교조 건설투쟁이었다고 설명한다. 한 발은 노동자의 생존과 권익 보장에, 또 다른 한 발은 거룩한 참교육실현 위에 굳건히 딛고 서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노동이요 교육노동자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 1989년 전교협 대의원대회 단상에 선 오종렬



▲ 1990년 4월 전교조 '온 나라 걷기'에 참여한 교사들과 광주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장기수 선생님을 알게 되다

구속으로 인해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오종렬은 매일 같이 한겨레신문을 봤다고 한다.

그때 본 것이 한 페이지를 전부 차지하고 있던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28년의 삶 이야기. 파란만장했던 만델라의 삶과 긴 감옥 생활 등을 보며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적개심을 느꼈다고 한다. 만델라라는 인간을 가두고 탄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던 즈음, 장기수들에 대해 차츰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

오종렬은 이렇게 말했다. "같은 교도소 안에 담장을 경계로 미결수 사동과 기결수 사동이 엄격하게 나뉘는데, 저쪽 담장 너머에서는 30~40년 수용생활한 장기수들이 있었지. 그전에도 장기수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어렵פות이 알긴 했지만 심부름 하는 교도소 복역수 등에 의해서 (제대로) 알게 됐어요. 고문당하고, 불구자 되고……. 이런 끔찍함 속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온 거야. 나는 일평생 동안 지을 수가 없어. 그것을 몰랐던 나의 몽매함, 야만에 가까운 고매함…….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어.“

구속된 지 3개월 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그는 스스로 '노역'을 자청했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느꼈을 고통과 절망이 어두컴컴한 물 밑에 있는 것처럼 그를 압박하고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 부끄러움이 그를 괴롭혔다.

"그 노역 생활은 지식분자의 관념적 낭만주의, 그런 껍질을 벗기는데 도움이 됐다."며 스스로는 그때의 '노역생활'이 구원이었다고 한다.



▲ 장기수 선생님들과 함께 한 오종렬

기초자치단체 의원 활동과 두 번째 감옥행

이후 집행유예로 수감생활을 마친 뒤로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1대 광주광역시의 회 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가 하면, 같은 해 1991년 출범한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에 선출되기도 한다.

1993년에는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김영삼 대통령이 망월묘역을 방문하려 하자 당시 오종렬은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망월묘역의 방문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의 광주망월묘역 방문이 무산된다. 그 여파로 오종렬과 광주전남연합은 정권의 표적 응징으로 극심한 탄압에 직면하게 되고 1994년 범민련 결성 주도, 남총련 폭력시위 배후 조종 등 국가보안법 및 공무집행방해, 불법집회시위 주도와 같은 수많은 혐의로 구속돼 97년 만기 출소할 때까지 2년 8개월을 감옥에서 살게 된다.

오종렬은 재판을 하면서 광주교도소에서 1년 5개월 정도 특별 관리를 받았고 이후에는 충청남도 홍성교도소에 수감되며 대상포진 병마와 싸우고 추위에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은 속에 자가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단전호흡과 기 수련의 구체적 내용을 자녀들에게 편지로 전하기도 하였다.



▲ 첫 지방의원 선거에 나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전교조가 낳고 광주가 키운 이시대 양심의 보루

오종렬 후보 2호



투쟁현장에서는 단호했고
교육현장에서는 푸근했습니다!



“북구 제6선거구(운암·동림동)은
신민당이 공천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오종렬 후보(기호 2)는
전교조의 민주연립(46대·보통)이
함께 내세운 후보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주민질문》

왜 이지역에
신민당 후보가 없을까요?

《답》

- 신민당 총재와 민주진영의 대표인 오종렬 후보가 3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였습니다.
- 그 협상결과 민주대연합 건설에 합의했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민주진영 쪽으로 신민당은 운암, 동림지역을 포함한 3곳에 신민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걸어온 길

- 광주시 광산구 삼도 출생
- 서석교고, 광주사범법실중, 광주고, 광주사범대학, 전남대 자연과학대학 졸업
- 고흥 금산국고, 진도 고성중, 전남고, 동명여중, 전대사대부고, 전남여고 교사
- 광주교사협의회 고문 및 회장
- 전국교사협의회 대의원의장 (1, 2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1, 2대)
-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 투옥
- 광주·전남 민주연합 상임의장
- 고 강경대 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박승희 학생 분신 광주·전남대책회의 공동의장
- 전교조, 민주연합 단일후보
- 공안통치 분쇄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광주·전남대책회의 공동의장

선거사무소 : 동문2동 90-26(오성주유소 건너편 용궁횡집 2층)

☎ 54-7910, 529-0054~5

이 인쇄물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해 제작된 것임
제작자 : 오종렬 인쇄 : 대흥인쇄

▲ 오종렬의 광주시의원 후보 당시 선거공보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방자치는 때문지 않은 양심과 해박한 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6공화국의 부정부패!
덜어 둘 수 없으며
그냥 놔 두어도 안됩니다.
이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참되게 가르치고자
노력하다 쫓겨났던
해직교사의 양심으로
애국 운암·동림 주민의
뜻을 받들어
독재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민주정부 수립에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 오종렬의 광주시의원 후보 당시 선거공보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종렬은 여러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 가훈 시조 8수를 소개한다.

가훈시조 8수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려 말고
깊은 산 골짜기에 하늘 닿게 자랐다가
일주문 짓는 자리에 기둥 되게 하소서

솜은 위용 고운 자락 뻗어난 그 모습에
사람들이 났을 잃고 봉우리만 우러를 제
하늘에서 내린 비는 골짜기로 모이누나(모인다네)

눈보라 칼바람이 옥창을 두드릴 때
광야에(서) 말달리던 그 모습 그리다가
스텐카라친 뱃노래로 서린 한을 달래주(보)네

백두산 오름 길에 고개 마루 넘었더니
마주 오는(던) 벗님네가 이웃마을 가느란다(가느냐한다)
조용히(말없이) 머리 끄덕여(이며) 웃음 띠어 보낸다

용천설악 버리는데 시련(담금질)이 으뜸이요
닭은 모이를 (쫓아)먹고 자라고
(시련 이긴 망아지가 천리마로 거듭나듯)
사람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
아기용도(이) 시련 먹고(뚝고) 허물 벗어 승천하니
만백성 지켜내고 단비 내리게 하여 주소

근하신년

늘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하며, 일을 다룰 때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매와 같이,
사람을 만나서는 봄날 햇볕 같게 하여 주십사

병자원단 아빠가

1999년, 난파선을 다시 세우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1997년 9월 홍성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일부 지역에서 해산을 진행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전국연합의 해산은 북의 고난의 행군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은 북이 조만간 소련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대중적으로 통일의 열기도 시들해 지고 있었으며 자민통 운동 내부도 극심한 사상적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당시 한총목 사무처장과 인천연합, 울산연합, 광주전남연합 동지 등이 오종렬을 찾아가 전국연합 의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

오종렬은 변혁운동의 주체는 통일전선체이기 때문에 전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다.

1998년에는 하반기부터 제주, 경남, 전북 등 지역연합이 해산을 시작하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결국 1999년 오종렬은 전국연합 의장직을 수락하게 된다. 이에 난파선이 된 전국연합의 선장으로 동국대에서 열린 8기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자료도 없이 그 포효하는 듯 찌렁찌렁한 음성으로 일장 취임연설을 펼쳤다고 한다.

잠시 소개한다.

용사들이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말은 달리자고 굽이쳐 굽을 내딛고 있습니다. 용사들은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려줄 자식들의 세상을 위해서 이제 다시금 떨쳐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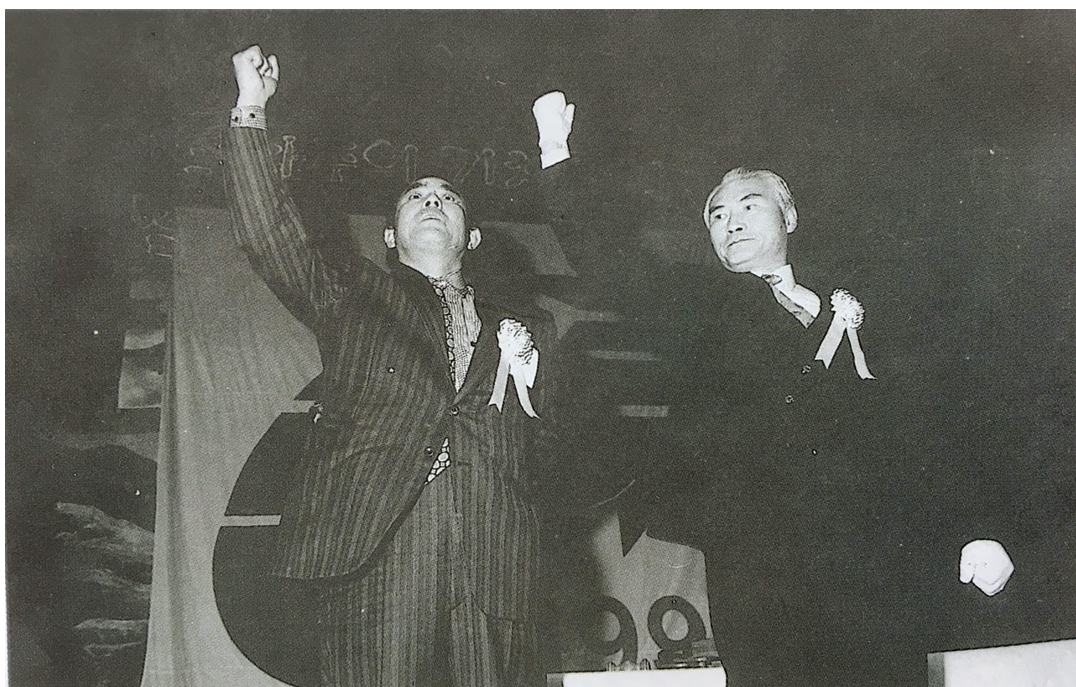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자주민주통일의 한길에 서있습니다.

작은 것을 서로 나눕시다. 큰 것으로 하나 됩시다.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큰 뜻이 한결같을진대 작은 다름이 어찌 큰 문제이겠습니까.

특히 청년학생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청년학생 여러분! 우리 조국의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대들의 가슴이 크게 열릴 때, 그대들의 눈물이 그대들의 웃음이 함박꽃처럼 피어날 때 그 속에 조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간혹 방법에 있어서, 간혹 순서와 절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약간 있다하더라도 그대들의 통큰 의지, 그대들의 통큰 결



▲ 1999년 2월, 전국연합 출범식에서 노수희 의장과 함께.

의가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한길로 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대들을 믿습니다. 그대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금 이르노니 청년학생들이여! 더욱 아름다워라. 청년학생들이여! 더욱 겸손하여라. 청년학생들이여! 더욱 예절 바라라. 청년학생들이여! 조국을 구하는 그 애국의 대오로 더욱 든든하게, 더욱 결의차게, 더욱 당차게 앞서 나가라. 거듭 부탁드립니다. 청년학생들이여.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포한의 세월을 살아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뵈올 때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민주열사를 우리는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족민주열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 세상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분네들의 타오르던 시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주민주통일 해방된 세상이올시다.

우리는 그 짐을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이 한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저희들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또 등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힘내겠습니다.

우리를 1만년동안 먹여 살려오신 농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1만년동안 사람으로서, 사람의 종자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파먹고, 여러분들이 그 땅을 파먹고 흘린 땀줄에 의해서 우리는 1만년동안 사람의 자식으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 농업, 농촌이 궤멸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갈 때, 이 나라 이 땅 미래의 농사가 죽어갈 때, 농촌이 죽어갈 때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대동세상, 우리의 자주독립의 세상, 해방된 세상을 엮어나갑시다.

이마에 흐르는 땀으로, 등줄기에 흘러내리는 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활품과 가치를 생산해내는 노동형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고초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고초를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니까. 이제 와서 이게 뭘니까.

국난, 대란의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이렇게 거리에 널부러져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차마 눈뜨고 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손을 맞잡읍시다.

군살 굳게 배긴 그 억센 손 우리 함께 잡아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땀에 의해서 생산되었고 여러분들의 슬기에 의해서 창조된 것 아닙니까.

노동형제 여러분 함께 떨쳐 일어섭시다.

이 나라 이 땅의 지식인 여러분.

지식인은 책무가 무겁습니다.

지식인은 그 지식 쪼가리 팔아먹고 사는 그런 장사치가 아닙니다.

지식인, 그것은 지고의 가치를 품에 안고, 지고의 가치를 등에 지고 그리고 시련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갈 그러한 숭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의 지식인 여러분! 함께 갑시다. 고난의 길 함께 갑시다. 노동자의 눈물, 농민의 피땀, 청년학생들의 그 어려움 우리 함께 안고 갑시다. 그리하여 그대들과 함께 이제 자주민주통일의 대동한 세상을 열어갑시다. 지식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스승이 계십니다.

수년 수십년 그 옥창에서도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의지를 가르쳐주신 분도 계십니다. 전 세계 그 유례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네들의 신념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신념 하나에 자기 생애를 걸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오실 수 있었을까요.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이 땅 우리의 스승처럼 그러한 생애를 엿볼 수 있었던지 한 번 예를 들어보라 하십시오. 누구 나와보라 하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선생님들의 가르침, 저희에게는 소중합니

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소중합니다.

더욱 강건하셔서 저희들에게 조국통일의 대의를, 그리고 슬기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동지가 동지를 아끼고 그리고 미워할 줄 모르면서, 미움을 어여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지혜도 함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 마음 속의 한가지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중집회 때 몇 차례 신창군 선생님을 소개해 올린 적이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선생께서는 50여년전에 당시의 스승인 김구주석을 모시고 남북협상을 위해 38선을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흥탄에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 50여년동안 당신의 스승의 염원을 안고 한결같이 오셨다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신창군 선생님을 그렇게 모신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올시다. 저에게도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 스승님들 뜻을 받들어서 모시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한 몸 던졌습니다. 이 나무가 썩은 나무 같으면 조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돌이 썩은 바위 같으면 또 조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썩은 바위가 아니고 썩은 나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뜻대로 조각해 주십시오. 다윗이 되든지, 골리앗이 되든지, 아니면 사오정을 만들든지 여러분 뜻대로 만들어서 여러분 뜻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거니와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그 다음 여러분들은 그지도에 엄격하게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 한사람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노수희 공동의장님, 우리 홍근수 공동의장님 똑같습니다. 우리 세사람, 삼위일체올시다.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연합 의장 오종렬이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조직적으로는 해산된 지역연합을 복원해야 했고, 극심한 갈등 속에 놓여있는 통일운동 노선도 모아나가야만 했다.

이에 99년 '8.15 통일대회를 하나로!' 대회를 성사시키자고 했다.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통일의 마중물을 위한 통일방북도 성사시켰다.

수감 중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드러나듯 시련 없이 승리 없다는 점을 의장 오종렬은 잘 알고 있었고 전국연합은 투쟁이라는 보검을 통해 분열의 상처를 보듬고 단결의 기운을 높여나갔으며 통일 방북을 통해 통일운동의 약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01년, 군자산의 약속, 정치 방침 발표



▲ 전국연합 10월 행사에서 '자주적민주정부 수립'을 호소하는 오중걸 © 통일뉴스



▲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이 선언된 보람원에서 참가자들과 만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

1997년 IMF 사태와 2000년 6.15 공동선언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IMF로 정리해고가 일상화되고 불안정노동이 확대되는가 하면 공기업 민영화, 금융의 자유화 등도 확대되었다. 한편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는 전국연합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운동노선과 전략을 세워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에 2001년 9월 전국연합은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특별결의문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 또는 '9월 테제(9월 방침)'를 채택하였다.

변혁운동 승리를 위해선 전민항쟁과 선거의 결합을 통해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전민항쟁을 조직화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전국연합에는 민주노총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으니 민주노총이 가입된 상

설적 연대 투쟁체를 건설해서 새로운 통일전선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통일연대를 구축하고 남-북-해외 연대사업을 전면으로 펼치면서도 민중연대를 구축하여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조직을 포함하는 상설적 연대 투쟁체를 구축하여 IMF 이후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과 함께 투쟁하여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변혁의 주체로 노동자, 농민을 세우고자 했다.

다른 한편, 전민항쟁이 결합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진보정당이 필요한데 민주노동당을 노동자, 농민에 튼튼히 뿌리는 내린 진보정당으로 만들어 진보집권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다.

이후 전국연합은 깃발을 다시 세워 태세를 정비하고 9월 테제를 통한 전망과 계획, 노선을 마련하며 전국연합은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2002년 여중생 투쟁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사망 사건은 한일 월드컵 열기로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2002년 6월 발생했다. 2002년 6월 13일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던 신호순, 심미선 학생이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소재 국도 321길을 걷다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것이다.

당시 14세인 신호순과 심미선 양은 사건 다음날이 효순양의 생일이기도 해서 여학생 다섯명이 모이기로 한 약속에 맞춰 가고 있던 길이었다. 미 보병 2사단 참모장 등은 피해 유가족에게 각각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미군 측이 15일 장례식을 치르면 사단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장례식을 마친 후 미군 측은 면담 약속을 파기하며 한국민을 기만하였다.

이에 경기도 동지들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투쟁이 시작되었다. 미군 부대 진입 투쟁을 시작으로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6월 2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원회가 50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성되었다. 오종렬은 여중생 범대위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누구보다 먼저 투쟁에 나섰다. 중학교 학생의 억울한 죽음이었고, 미군의 범죄라는 점에서 오종렬이 이 투쟁의 최전두에 선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



▲ 미군장갑차 살인사건 희생자 고 신호순, 심미선 49재 추모 제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 통일뉴스

그리고 미군 측에 재판권을 포기하라고 했으나 이제껏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 이후 11월 미 군사 법정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리고 며칠 후 가해자는 미국으로 줄행랑을 쳤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 찢었다.

미국 당국자 그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촛불 시위가 전 국민적으로 진행되자, 허바드 주한미대사를 통해, 또 한 번은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간접사과를 했다. 그리고 12월 14일 ‘주권회복의 날’ 대규모 시위를 하루 앞둔 13일 밤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로 사과표명을 했다. 그러나 이 사과도 여중생의 죽음에 대해 유감을 표할 뿐, 미군 측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2002년 11월 30일 토요일. 1만여명의 시민이 광화문 네거리를 촛불로 밝혔고, 일주일 뒤인 12월 7일엔 5만여개의 촛불이 켜졌으며, 다시 일주일 뒤인 14일엔 10만여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을 ‘반딧불이의 바다’로 만들었다. 대중적 반미 투쟁이 한국에서도 시작된 것이고 그 앞에 오종렬이 있었다.

자주민주통일전사 강희철을 잃다

강희철은 학생운동가였으며 노동운동가였다. 그는 인천에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인천지역에만 국한하여 활동하지 않았다. 1994년 한노협 결성부터 1996년 전국노동자통일대연석회의가 결성될 때까지 노동운동가로서 광주와 안산, 서울 등 각지를 다니며 전국 노동운동의 단결을 위해 애썼다.

강희철은 전국연합이 난파선이 될 위기상황인 1998년. 전국연합을 민족민주운동의 구심으로 세우기 위해 불같이 일어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종렬을 만나게 된다. 강희철은 1999년 인천연합 조직위원으로, 2000년에는 오종렬의 부름을 받고 전국연합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전국을 다녔다. 아침에는 서울, 점심에는 전주, 저녁에는 제주에 갔다. 모든 것을 쏟아 전선을 지키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2001년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연방통일 조국 건설하자’는 9월 테제를 만들고 확대하는데 온 힘을 다한다. 전국연합의 주축이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위시로 지역과 부문 조직에서 민족민주정당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힘을 보탰다.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2년. 그 이듬해인 2003년 2월 강희철은 전국연합의 정치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노동자·농민·청년학생들과 진보정당을 건설하는데 앞장 서기 위한 선택이었다.



▲ 고 강희철 동지의 영결식에서 참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 민중의소리 김철수

하지만 강희철은 2003년 4월 7일. 전국연합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4월 13일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다.

오종렬은 강희철 동지를 “비밀을 간직한 별나라 소년처럼 표정 하나 변함없이 태연하게 일했다”고 했다.

1주기 추모제에 참여해서는 "강희철 동지가 떠나간 지 10년도 훨씬 지난 것 같다. 나는 전국연합 상임의장으로 그에게 빚을 졌다. 제발 나보다 빨리 가지 말라고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는 우리 곁을 떠났다"며 "그에게는 사생활이 없었다. 그와 같이 일했던 동지들은 안다. 누구에게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에게는 더욱 철저하고 혹독하게 비판했던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종렬은 “그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축을 언제나 가슴에 담고 사업을 기획하고 사람을 찾

아나셨던 사람이었다" 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비전향장기수 모임인 통일광장의 권낙기 대표는 “희철은 자주, 민주, 통일 세력들의 대동단결로 조국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목숨을 건 혁명가였다. 누구보다 치열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1000인 단식단 단장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이다. 국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국민행동]을 구성한다. 전국연합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 주권을 무시한 보수 세력의 반격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의석은 47석에서 152석으로 증가하였고 한나라당은 121석, 민주노동당은 10석을 얻게 되었다. 진보정당 최초로 의회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을 제치고 제2야당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2001년 전국연합 9월테제의 방침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에 탄핵 국면을 딛고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2004년 12월 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사활을 걸기로 하는데 12월 6일 오종렬 상임의장,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의장, 이종린 명예의장 등 무려 300명이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 2004년 12월 14일, 국가보안법폐지 단식농성 확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날로 단식 참가자는 500명을 돌파했다. © 통일뉴스

단식농성 참여자는 일주일만에 560명을 넘기며 보름만에 1000명이 넘는 규모로 늘어났다. 국가보안법 폐기 여론도 확대되고 전국교수대회가 개최되는가 하면 강만길 상지대 총장,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 등 학계·종교계·법조계·여성계 원로 74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12월 29일, 단식 24일째에는 경남지역 12명, 울산 37명, 부산 14명, 전주·완주 10명, 서울 18명 등 지역/단체별로 발표된 '결사단식단' 총 219명이 중대발표를 통해 물과 소금도 끊는 결사 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종렬 공동농성단장은 "우리가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국기를 끊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참가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오종렬은 "국가보안법이 양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아 왔음은 지난 56년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잘라 말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통일인사, 민주인사들이 학살되고 고문되었나, 100만 원구가 대한민국 하늘을 떠돌고 있다"고 절규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대해 "권력과 부를 독점하던 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라 비난하고, "오늘의 투쟁은 대한민국이 이런 잔재를 떨치고 자주적 민주정부로 가는 대장정의 영마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처절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와 함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시간을 끌며 타협하면서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무산되고 만다.

2005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 열사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전국연합은 2005년 반미 투쟁을 전면화했다. 5월 미국의 광주 송정리 페트리엇 기지 철거 투쟁, 7월 대추리 미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 9월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등 격월 간격으로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 시기마다 수만명이 집결했다.

10월 말에는 정부와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고, 국회 통과를 예고했다. 비준동의안은 쌀 관세화 개방 유예를 조건으로 밥쌀 수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농민들의 분노가 전국 각지에서 터져 나왔다. 농민들은 12월 초로 예정된 WTO 후속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 이후 비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강변했지만 정부는 선제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행 처리했다

11월 15일 여의도에서 WTO 쌀개방 저지 투쟁이 전개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으로 인해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사망하게 되고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인이 경찰 폭력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노동자, 농민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11월 18일 APEC 부산 정상회담 저지 투쟁을 거쳐 WTO 각료회담이 열리는 홍콩에서 투

▶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에서 진행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백발 노인의 3보 1배는 시위대에 부정적이던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쟁을 이어가기로 하고 청와대 앞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저 멀리 홍콩에서는 12월 11일 WTO 각료 회담 저지 투쟁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자리에 맨 앞에 오종렬이 서 있었다. 홍콩 원정 한국투쟁단의 대표는 정광훈과 오종렬이었다. 당시 한국투쟁단은 농민 1000여명과 민주노총 130여명 등 1100여명이 함께 했는데, 홍콩 언론은 한국투쟁단을 처음에는 폭도로 소개했다. 이때 오종렬은 자기 헌신적 방식으로 호소하고 홍콩시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기획된 투쟁이 전농 소속 농민 130여 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WTO 각료회담장 앞 50여 미터 직전까지 헤엄을 쳐서 각료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결사투쟁을 벌이는 것이었고 촛불 집회 방식과 삼보일배도 병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국투쟁단의 헌신적인 모습에 홍콩시민들이 동참했고 언론 논조도 서서히 변화했다. 한국투쟁단에 대한 현지 언론의 관심은 뜨겁고 폭발적이었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게 3보 1배"라고 전 세계 민중들에게 친절히 설명한 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난폭자가 아니다! 가장 존엄한 생산자이고, 민중이다! 오늘 우리의 존엄성을 만방에 보여주자"라고 호소했다. 정광훈 의장님의 'DOWN, DOWN, WTO! DOWN, DOWN, USA!' 구호도 여기서 등장했다.

그러던 와중 홍콩 투쟁을 채 다 마치기도 전에 오종렬은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다. 전용철, 홍덕표 농민 열사 투쟁 때문이었다. 국가 인권위 조사 결과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인은 경찰의 폭력 때문이라고 밝혀졌고, 노무현 대통령도 12월 27일 사과했지만 정작 허준영이 책임을 회피하자 오종렬은 허준영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뜻도 같았다. 농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에도 경찰청 앞에 눌러앉아 허준영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

다.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며 사퇴를 거부했지만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씨에도 노숙 농성으로 그렇게 이틀을 버티자 허준영은 결국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하고 만다.

오종렬은 2005년 마지막 날에 진행된 전용철 홍덕표 농민 영결식에서 “이제야 떠나보낼 수 있어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열사를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열사를 살리자는 말은 시신을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민족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뜻한다”면서 “민족농업의 회생은 전 민족의 대단결로만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2006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연초부터 일본은 앞서가고 중국은 우리를 추격해 온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에 한국 미래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선 서비스 산업이 가장 발전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진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4대 선결요건을 미국에게 내주었다.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등이다. 퍼주기 협상인 데다가 피해를 보는 다수 국민뿐 아니라 국회에 마저 철저하게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국회와 시민사회가 그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고 그 결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경제주권 등을 침해하는 여러 독소조항들도 손보지 못했다.

이에 한국의 전체 시민사회와 민중진영 뿐 아니라 각계가 절박하게 대응에 나서야 했다. 우선 영화인과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 2007년 1월 16일,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모습

(준)’(범대위)가 2월 15일에 발족했는데 이 자리에서 오종렬은 “(한미FTA는)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들(정부행정관료들)의 세계화이자 국가발전전략”을 보면 “구한말 일본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방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던 친일파들이 떠오른다”며 “너무나 닮아있는 그들만의 정부,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 제2의 내선일체”라고 주장했다.

6월 오종렬은 한미FTA 저지 투쟁단 단장으로 미국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인 한국 투쟁단을 폭도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미국 정부는 한국투쟁단의 노동자, 농민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발악을 일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투쟁단은 <평화집회 평화시위>의 원칙 아래 삼보일배와 촛불시위, 국회 앞 집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 고 허세욱 열사 분향소에 함께 한 오종렬과 정광훈 의장.

것을 다하면서도 이러한 투쟁은 3차 협상이 열린 시애틀에서도, 5차 협상이 열린 몬테나에서도 계속되었다.

2006년 11월 22일에는 전국동시다발 총궐기가 있었다.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을 크게 앞질렀고 가면 갈수록 까면 갈수록 노동자,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협상인 한미FTA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에게 노동자, 농민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전국광역시도시별로 수만명의 집회가 열린 것이다. 10여개가 넘는 광역도시에서 노-농-빈 수만명이 운집하는 집회가 열리니 경찰력이 이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정광훈 의장님의 말씀처럼 총궐기 혁명 축제의 난장이 되었다. 이 집회로 인해 수십명이 구속되고 한미FTA 저지 범국본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은 수배를 받게 된다.

오종렬은 한미FTA 타결의 막바지 시점에서도 3월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바람막이 하나 없는 맨바닥 장판을 깔고 8일째 단식중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렁차고 확신에 찬 목소리의 오종렬은 "밀실야합으로 협정이 체결된다면, 정부는 민중항쟁과 민중봉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10여명으로 시작한 단식농성단이 1주일 만에 100여명으로 늘었다. 이제 곧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만명이 될 것이다. 민중들이 일어서면 반드시 FTA는 막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2007년 4월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타결되고 그 과정에서 허세욱 열사가 "한미FTA 폐기하라"를 외치며 분신하였고 오종렬과 정광훈은 7월 4일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으로 인해 구속되고 만다.

2007년 한국진보연대 출범

2005년, 2006년 투쟁 과정을 거치며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전선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단했고 2006년 10월, 오종렬이 상임공동대표로 있는 전국민중연대 대표자회의에서 조직발전논의를 통해 ‘진보진영 상설연대체’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며 ‘한국진보연대’로 명칭을 확정했다.

그리고 2007년 1월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전농 문경식 의장, 전빈련 김홍현 의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대표,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를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각 단위 사무총장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인선하기로 합의하며 한국진보연대는 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기존의 민중연대, 통일연대의 활동을 계승했다.

9월 16일 한국진보연대 출범식을 앞두고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사무처장은 수배 상태였고 상임공동대표인 오종렬과 정광훈은 7월 한미FTA 투쟁 건으로 구속된 상태라 한국진보연대 출범이 심각한 난관에 부딪치는 듯 했다.



▲ 한국진보연대 출범식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오종렬과 고 정광훈 의장
© 통일뉴스

하지만 진보연대의 수많은 동지들이 오종렬 정광훈 의장님의 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두 대표를 양심수로 선정해 한국 정부에게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등 여론이 확대되자 출범식 이틀을 앞두고 오종렬, 정광훈 상임공동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진보연대 출범식에 두 대표는 참가할 수 있었다.

출범식에서 오종렬은 “느닷없이 끌려갔다가 느닷없이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로 인사말을 열었다. 또 “동지들의 깃발, 신발, 심장이 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팔굽혀펴기를 120개씩하고 날마다 운동장을 100바퀴씩 달려 발바닥에 새로운 발굽이 생겼다”며 그동안의 구치소 생활을 소개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 이제는 여러분과 천리만리 뛰어다닐 수 있다”며 “한국진보연대 깃발 아래 자주통일, 민중해방으로 우렁차게 떨쳐나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 농업회생 투쟁, 빈민 투쟁, 청년학생 투쟁, 여성해방 평등 투쟁을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조국통일을 완수해 민중에게 권리가 돌아가는 것이 민중승리”라며 “진보진영의 총단결과 민중승리를 위해 신명과 생명을 다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 2월에는 창립 17년 만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을 해산했다.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은 대회사로 통해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들고 해방 이후 가장 크게 일

어선 전국연합이 드디어 새로운 도약에 올라섰다”면서 “민중의 정치 부대인 민주노동당과 연대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호소했다.

"역사적 순간"을 맞아 대회사에 나선 오종렬 상임의장은 "'자주민주통일'의 기치 높이 들고 '대중투쟁의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로서 8.15 이후 가장 크게 일어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드디어 새



▲ 2008년 2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마지막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어 전국연합 해산을 선언한다. © 민중의소리

로운 도약대에 올라섰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의 지난한 활동을 통해, '대중투쟁의 구심'으로 한국진보연대가, '정치적 대표체'로 민주노동당이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8년 5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 그리고 구속

2007년 연말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다.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보다 무려 500만표 차이로 앞선 압승이었다. 이어진 2008년 총선에서도 이명박이 당 대표로 있는 한나라당이 153석, 박근혜를 따르는 친박연대가 14석, 자유선진당이 18석으로 보수진영이 개헌선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민주당은 81석에 그쳤고 민주노동당의 의석은 2004년 17대 의회에서 10석이었던 것이 5석으로 줄었다.

위키리크스에서 밝힌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뺏속까지 친미, 친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을 다녀왔다.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을 촉구하면서 대신 미국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소 내장 등 광우병 위험 특정 위험 물질도 제한 없이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5월 초 청소년들이 먼저 이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를 시작했다.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대거 가세하여 촛불집회는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그해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그해 8월까지 매 주말 이어졌고,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계승기념일’에는 서울 도심에서의 촛불집회에 10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며 그 절정에 달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미국과의 재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30개월령 이하로 제한되고 광우병 위험 특정 위험 물질의 수입도 금지되었다.

오종렬은 촛불과정에서 마이크를 잡은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촛불 집회 때 빠진 적도 없었다. 자발적 시민들의 촛불을 지원한다는 의지였다. 두 차례 정도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첫 번째는 촛불이 막 타오를 때인 5월 초 촛불이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한다고 해 우리는 걱정돼 죽겠는데 정부는 안전하다고만 한다”며 “정말 미치겠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지난 4월 19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날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일본에서는 뺏조각이 발견되자 검역 중단도 아닌 수입중단을 내렸다”며 일본과 달리 굴욕적인 협상을 한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을 우려하며 “협박에 굴한다면 계속 짓밟혀야 하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 촛불문화제를 성사하자”고 주장했다.

오종렬은 국민안전을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탄압에 대응한 폭력적 방식의 시위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6월 10일 100만을 모아보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월 7일부터 72시간 릴레이 촛불 대행진과 농성을 제안하고 몸소 앞장섰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농성장의 좌장격으로 전체 흐름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은 누가 뭐래도 오종렬이었다. 경찰의 폭력 유도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며 평화시위를 호소한 이도 그였다. 그는 경찰 폭력에 맞서 시위 방식도 폭력적으로 변화하며 대중의 참여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싸움의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모차 부대와 여고생이 참여하는 집회여야 확장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농성을 시작하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비폭력 평화시위의 원칙을 토대로 잘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오종렬 의장은 촛불문화제를



- ▲ 수배 중 인터뷰를 하는 모습 © 민중의소리
- ◀ 수배에 도움을 준 전교조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전교조
- ▶ 경찰기동대 창설식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편하하는 정부 당국자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위현장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일부 수상한 자들의 음모에 빠지지 말자"고 당부했다. 경찰의 폭력 유발과 이를 빌미로한 대폭압작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오종렬의 판단은 정확했다. 7월을 넘어서며 촛불 대오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광우병 대책회의를 비난했다. 나중에 확인된 일이지만 폭력을 선동한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촛불이 계속 진행되자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대책회의 간부들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오종렬을 비롯해 한상렬, 박석운, 주제준 등을 포함 한국진보연대 중앙 간부 중 과반 이상이 수배되거나 구속되었다. 오종렬 당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은 수배령이 내린 직후 한국진보연대 사무실로 잠입했다.

당시 오종렬은 2006년 한미FTA 건으로 구속되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다시 수배령이 내려진 때문에 이번에 구속되면 긴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바로 한국진보연대 후원 회원들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은 민주노총 건물 안에 있었는데, 저녁이면 오종렬을 따르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매일 적게는 5명, 많게는 50명씩 간담회를 하고, 모두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오종렬은 사진을 찍기 전에 반드시 한국진보연대 회원가입을 권유했고, 후원회원 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8월 시작된 간담회는 11월 초순까지 3개월간 1000여명의 한국진보연대 후원회원을 모았다. 오종렬에게 수배는 한국진보연대 확산의 베이스캠프였던 것이다. 이는 한국진보연대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3개월간의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안에서의 수배를 마치고 오종렬은 주제준과 함께 현장순회를 떠난다. 경기 수원에서 회원을 만나고 다시 충남으로, 그리고 인천, 전주를 거쳐 전농에서 간담회를 하는 도중 경찰에게 연행된다. 2008년 11월 중순이었다. 그리고 오종렬과 주제준은 2009년 설 직전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2011년 혁명 동지 정광훈을 잃다

2009년 오종렬과 정광훈은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서 물러나며 상임고문 직함을 얻는다. 십수년간 최전선에서 싸우던 두 대표에게 고문이라는 직함이 맡겨졌을 때 웬지 가슴 한편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오종렬과 정광훈 의장은 20년을 넘도록 함께 같은 활동을 한 가운데 꼬박 10년 이상은 숙식도 함께하며 타향살이를 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둘이서 나란히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풍찬노숙도 함께 했다. 1990년 3당 야합 이전엔 농민운동과 교육노동운동 현장에서 각각 따로 활동하다가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저절로 한 배를 타게 된 것이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 1999년 어느 날, 함께 집회에 참석한 당시 전국연합 의장 오종렬과 전농 의장이었던 고 정광훈 의장
- ▲ 2007년 8월 3일, 구속적부심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연 두 의장. © 민중의소리
- ▲ 2007년 9월 14일, 보석으로 석방되어 환영행사에 참석한 두 의장. © 민중의소리
- ▲ 고 정광훈 의장 영결식에서 추모사를 하는 오종렬.

둘이 자취를 하던 작은 집, 한 칸 있던 방은 추위를 많이 타는 정광훈이 썼고 반대로 더위를 많이 타는 오종렬은 거실에 잠을 청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성격도 판이하고 생각도 많이 다른 줄 오해하기도 하지만 둘 사이는 단 한 번도 어긋날 적이 없었다. 2009년 정광훈 의장이 12년 만에 고향 해남으로 돌아가면서 오종렬은 이제 자취방에 혼자 남게 되었다.

2010년 진보연대 공동대표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 서울 농민대회에서 했던 정광훈의 연설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농민이 죽어자빠져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이 죽어가는 데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공식 석상에 서는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만 하면 때려 죽일라고 하지만, 혁명을 해야 한다는 말, 변혁을 해야 한다는 말, 천지 개벽을 해야 한다는 말,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 남한 민중들은 우리의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혁, 혁명을 통해서만이 민중권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 함부로 두들겨 맞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맞습니까, 왜 우리가 죽습니까?

오늘 투쟁하다가 두드려 맞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해고입니다.

이 연설은 정광훈의 마지막 연설이 되었다. 그리고 2011년 민주노동당 선거를 지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정광훈 의장이 사망한다. 오종렬의 정치적 쌍둥이를 잃은 것이다. 오종렬은 너무나 비통해했다.

정광훈 의장은 앞서 간 열사들의 무덤 앞에서 늘 ‘지하에 가셨으니 이웃 열사들과 지하조직 잘 하여 해방세상 이루시라’고 하였는데 오종렬은 이 얘기를 정광훈 무덤 앞에서 하며 서글피 울기도 했다.

오종렬은 정광훈 의장과 자신이 정치적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이며 “자주통일은 민중해방, 복지사회로 가는 결정적 관문이자 절대적 필요조건”이고 “자주통일 그 자체가 곧 복지사회는 아니지만 자주통일 없는 자리에 민생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화통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들의 한결같은 뜻은 “갑오에서 오월로, 오월에서 통일로!!”였다고 했다. 그리고 오종렬은 정광훈 의장의 추모사를 통해 “어떤 지역, 어떤 계급, 어떤 부문 운동단체든 ‘전선’으로 모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개 품잡고 ‘달밤에 유난체조’나 하고 자빠졌으면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다”는 정광훈 의장의 평생 주장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총 든 자본주의, 제국주의 몰아내고 통일세상, 대동세상 이루어서 향기롭고 맛나게 자손만대 살아보자!”며 “Down Down WTO! Down Down FTA! Down Down USA!”를 힘차게 외치며 추모사를 마쳤다. 오종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2012년 8월 15일 오종렬 의장님

통합진보당, 분당은 파멸, 기준은 자주민주통일

2012년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은 당내 큰 혼선이 일었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등이 통합하며 치러진 선거에서 당내 부정 선거 시비가 확대되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구 진보신당을 기본으로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사민주의 논란도 확대되고 있었다.

이때 오종렬은 사민주의 논란과 관련하여 진보진영을 향해서도 "분단이라는 큰 감옥 속에서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괴상한 망상에 진보적 인사들까지 중독되고 있다"며 "진보진영까지도 자주통일이라는 것이 공연한 잠꼬대인듯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종렬은 진보진영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북핵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고 꼬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청룡도 든 이(미국)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늘 든 이(북한)를 시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질문에 "그들은 진보진영이 정권을 갖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 열걸, 스무걸, 백걸 함정과 울무를 자치해놓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이걸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며 통합진보당 사태가 단순히 진보진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모종의 공작과 연계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종렬은 "진보역량에 대한 파괴음모와 공작은 항상 있어왔다"며 "우리의 실패를 그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분당을 향해 달려가는 데 대해서는 "파멸의 길"이라며 "아무리 화가 나고 성질이 나도 분당은 없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자주민주통일을 핵심으로 하는 진보의 가치라는 기준이 있다"며 "패권을 말끔히 청산하고 아픔을 딛고 크게 다시 태어나보자"고 말했다.



◀ 2012 통합진보당 총선승리 전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

2014년 간경화 발병과 2015년 5.18 민족통일학교 건립

2014년 2월 오종렬은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 동시에 오종렬은 간경화와 급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는다. 녹색병원에서는 혈액 투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그러면 생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오종렬은 혈액 투석을 거부하고 자연치유에 전념했다. 서울 자취 생활도 어쩔 수 없이 마감해야 했다. 그리고 투쟁 생활과 함께 일생 역점 사업이었던 5.18 학교 건립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전 재산을 털어 5.18묘역 근처인 전남 담양에 부지를 마련하고 백방으로 5.18 학교 건립을 위한 벽돌쌓기 회원을 모집했다.

여기에는 담양농민회 최정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설계는 인천의 소성호 동지가 맡아 시공도 책임져 주었고 광주 건설연맹 조합원이 손수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었다. 벽돌쌓기를 통해 5억에 가까운 재정도 마련했다. 2015년 6월 28일에는 5·18민족통일학교 준공식을 열었다. 오종렬은 이 자리에서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중이 깨우치고 손 맞잡고 일어서면 조국통일, 사회평화, 인권 다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다. 내 눈으로 통일되는 것을 꼭 보고 싶지만, 설사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해놓고 가야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일어서는 민중, 깨우치는 민중, 이 모습은 꼭 보고 가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종렬은 고천문을 통해 “민족이 무너진 구덩이에는 민중의 때 주검이 파묻히고 자주성이 훼손된 자리에서는 백성들의 피가 끝없이 흘러 내립니다.”고 강조했다. 어진 백성들의 눈물과 땀으로 <갑오에서 5월로, 5월에서 통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만인교사 만인학생> 토론의 전당인 <5·18민족통일학교>를 세우고 준공식을 올린다고 했다.



▲ 518학교에서 부인 김평임님과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모습. 오종렬은 일생의 마지막 사업이라 생각하고 518학교에 매진했다.

다시 생각하는 민족간부

오종렬은 민족간부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민족간부 육성이 왜 중요한지 들어보자 “자주민주통일을 실천하는 주체는 틀림없이 대중이지만,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민족간부라고, 민족간부 육성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이라고, 민족간부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자고 거듭 간절히 호소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오종렬이 생각하는 민족간부는 자민통의 강령으로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을 조금더 들어보자 “진정한 민족간부는 대중 앞에서 언제나 겸손합니다. 대중 속으로 녹아 들어가,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그리하여 결국,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으로 대중과 하나 됩니다. 우리의 생존문제에서 민족자주란 도대체 무엇인가? 백성의 삶과 사회의 민주발전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자주적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웃에서 늘 마주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답답해하고 무엇에 아파하는지, 그것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 대중의 언어로 설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민족간부” 라고 여러차례 힘을 주어 말하기도 했다.

또한 “낮은 걸음, 더딘 걸음이지만, 여럿이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 내는 사람, 그가 바로 민족간부입니다. 어려운 철학용어나 무슨, 사회과학 서적을 찰찰 외우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문은 좁게, 문턱은 높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왜 뛰어넘지 못하느냐고 호통하지도 않습니다. 문을 넓히고 문턱을 깎아내립니다. 여럿이 함께 가는 길에 가시덤불이나 젖은 구덩이가 보이거든 앞장서 그 위에 엎어집니다. 그리하여 지친 사람들이 자신의 등을 밟고 갈 때 그는 고통 속에서도 웃습니다. 이것이 민족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역량을 기르는 민족의 지도자” 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종렬은 “사상의 뿌리는 깊게, 표현의 수위는 낮게, 연대의 폭은 넓게, 실천기간은 영원토록, 우리 민족간부로 살고 투쟁” 하자고 언제나 힘주어 말하곤 했다.

*이 자료는 고 오종렬 의장의 회고록을 준비하던 초벌 자료를 압축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압축 편집되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 2019년 9월 21일.
518민족통일학교 정기총회에
참석한 모습.
이 날의 개회사가 그의 생애 발언
이 마지막 발언이 되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줘서 참 좋습니다.
내 몸이 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뜻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민중의 위하여, 민중과 더불어, 민중과 함께
조국통일의 자주성을 확실하게 우리는 확보합시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모든것이.
이제 새로운 출발, 날마다 새로운 출발,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저 뒤에 보면 대숲이 있습니다.
저 자라나는 대숲을 나는 날마다 바라보며 연명해 갑니다.
저것이 바로 민중입니다. 뿌리 깊은 민중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모두 개척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오에서 5월, 그리고 민족민주평화통일

*이 글은 오종렬 의장님께서 직접 작성한 '5.18민족통일학교 토론제안문'입니다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12계명 "사대, 종파, 관료, 권위, 교조, 기회주의를 혁파하고 반제, 자주, 민주, 평등, 평화, 통일위업을 계승발전하라"를 상기합시다. 그 사전적, 역사적 의미와 실용성 정당성 및 절박성을 토론과 성찰을 통해 엄정히 검증합시다.

1,500년전, 고구려 신라 백제 3국이 연합, 중원을 도모하여 침략의 본거지를 없앴 후 셋이서 연합국가를 만들자는 연개소문에 맞선 김춘추 김유신은 중국^당과 함께 려·제를 멸하여 대륙을 바치고 한반도 남쪽 귀퉁이에다 사대주의 국가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당, 송, 원, 명, 청, 일, 미... 종주국에 예속된 관계를 단 한번이라도 벗어난 적이 있었던가? 속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수많은 시체의 산으로 이룬 거봉.....

그러나 개벽의 꿈은 사라지고 민중의 가슴엔 “해봤자...”라는 체념만 숙명이 되어버렸습니다. 3.1독립운동에 영향 받은 중국에서 5.4운동이, 4.19의 영향으로 터키에서 민주화운동이, 5.18을 본 전 세계인류가 감동으로 물결쳤는데 세계를 놀라게 한 촛불바다 역시 이 땅에서는 부끄러운 선례를 되풀이하지는 않을까요? 최근 연해주의 울치족, 만주의 여진족, 한반도의 조선족, 몽골족, 베트남족, 일본족에게서 단일민족에 유사한 공동유전자를 발견했다는데 환웅-치우천황-단군의 후손인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신세일까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얹어버리기도 한데 우리 역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던가? 있었지요. 근현대사에서 그 효시가 바로 '척양척왜 제폭구민 보국안민 광제창생' - 즉 반외세 자주, 반봉건 민주, 대의로 일어난 갑오농민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사대매국 지배층과 일본제국주의 침략자가 연합하여 사비성, 평양성의 비극이 재현되었습니다. 뿌리 뽑힌 자주 평등 민생 민주 혼은 끊임없이 되살아 나 오늘의 촛불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솟아오른 민족사의 거봉을 두루 헤아려 봅시다.

낮을 들 수 없이 부끄러운 ‘자유시 참변’을 기억하십니까? 1919년을 전후하여 불꽃처럼 일어난 한인사회당이 시베리아에 망명해서도 ‘상하이파’니 ‘이르쿠츠크파’니 헤게모니 싸움으로 분탕질하다가 짜르 러시아의 백군과 내전 중이던 러시아 혁명군으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고 이에 불복한 파당은 전멸당한 비극 말입니다. 아무리 대의를 내세워도 제 패거리의 권력과 이익 독점에 몰두하면 어김없이 종파 아닙니까?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조국과 민중에게 바쳐서 이룬 새 세상을 모두 다함께 누리자는 게 여러분의 신념 아닙니까?

옛 소련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서 당과 국가 안에 특수조직 노멘클라투라를 두어 혁명의 골간기능을 주도케 하였으나 그들은 배타적 이익과 특권에 취해버렸답니다. 마침내 당과 소연방은 인민대중으로부터 유리되어 연방해체와 당 몰락 사태를 자초한 주 요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데, 노멘클라투라 및 한말 세도정치의 망령이 우리 주변에 어른거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조상은 태고적부터 외침을 당하거나 재난을 만났을 때 벌떼처럼 일어나 외적을 물리치고 환난을 극복해왔습니다. 차별도 외면도 마다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찾아내 복돋우고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긴 긴 잠에 빠진 거인은 이제 부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1980년 5월 이후 삼십여년 동안 회한과 고뇌의 탐색, 그리고 대중투쟁의 발길을 이끌어 온 화두 가운데 인문학적 일부분입니다. 어느 누구의 주관에 빠지거나 5.18민족통일학교의 정체성과 어긋난 부분이 있거든 가차 없이 뽑아냅니다.

- 갑오에서 오월로, 오월에서 통일로! 만민교사 만민학생의 만민토론 만민공동체로 - 시대정신에 맞을까?
- 백성들에겐 밥이 하늘이요 다스리는 자에겐 백성이 하늘이며관자, 환란은 가난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에서 온다공자는 정치사상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인가?
- 뿌리 없는 나무는 비가 와도 마르고, 민중의 해방나무는 민족의 뿌리에서 자란다고?
- 민족자주가 무너진 구덩이에 민중은 때 주검이 되어 파묻힌다. 우리에게 민족은 곧 민중이다! - 사실인가?
- 자주독립, 민족통일을 저버린 적대적 민족분열, 분단의 장벽 안에서, 평등평화, 민생민주? 인권복지? 모두가 허망한 신기루일 따름이다! - 설마 지나친 속단 아닐까?
- 열사의 시선에 따라 사상은 깊게, 표현은 낮게, 연대는 넓게, 무궁토록 실천하자!
- 밥이 하늘이다. 생업에 충실하자. 세상을 바꾸자는 신념도 실천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사람의 손은 노동

에 충신토록 진화하지 않았는가?

- 같은 강을 건너더라도 여름에는 뚝단배를, 겨울에는 썰매를 이용한다.
- 어른 옷과 신발 걸치고 큰 소리치며 설치는 어린이, 어릴 때 입던 옷과 신발 걸치고 먼 길 나서는 어른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다.
- 과냉각 과포화 수증기라도 응결핵이 있어야 빗방울이건 눈송이건 만들어 진다.
-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민중이지만 그 민중의 일으키는 주체는 민족간부이다.
- 대중의 바다에 녹아드는 소금이 되고, 술독안의 누룩이 되고, 콘크리트 구조물 속의 철근이 되자! 이들이 진정한 민족간부다.
- 당동벌이 黨同伐異로 망하고 구동존이 求同存異로 흥한다는 선대의 가르침을 명심하자.
- 생각이 같다고 다 진정한 동지일 수 없다. 더불어 일을 도모하는데서 동지는 시작한다.
- 다양하고 고상한 모든 정치사상의 뿌리는 도덕성이고 그 핵심은 “창생을 위함!”에 있다. 도덕성을 떠난 정치사상은 탐욕과 허영의 가화 蠶衣꽃 조각일 뿐이다.
- 아득한 세월을 대중조작에 의해 개돼지로 길 들여 진 백성일지라도, 깨우치고 뭉쳐 일어서면 그들에 곧 메시아요 미륵이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다.
- 적에게서도 배울 줄 아는 사람만이 최후에 웃는다.
- 아무리 영웅적인 투쟁의 성과물일지라도 백성의 것이 아닌, 그 누구의 전리품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功德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생할 수도 부활할 수도 영원히 썩어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건 사실 이상의 진실이다.
- 하늘을 열고 새 세상의 주인이 되는 백성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518민족통일학교는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자기교육에 충실함으로서 새 세상의 주체를 창조코자 한다.
- 안에서 짊고 밖에서 쪼고 蝻踏동사-啐啄同時, 배우면서 가르치고, 깨우쳐 익힌 것을 실천하고 검증하며, 끊임없이 새 출발하는 일이 학습입니다.
- 민중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은 “투쟁을 게을리 한 자는 용서할 수 있으나 학습을 게을리 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일렀다. 한시도 잊지 말자!

추모 자료집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제준, 오정규, 오창규, 이원규, 심규현, 신정임, 조용신, 조양진성



